

115

## 도장작업자에게 발생한 장폐쇄증

성별	남	나이	41세	직종	도장공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	-------	----

### 1 개요

정○○(41세, 남)는 여러 가구 공장을 다니며 도장작업을 하였는데, 1999년 8월 16일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여 장유착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9월 18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. 평소 화학약품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하였으며 3년전부터 간장질환과 관절염 증상이 있었다.

### 2 작업환경

정○○은 사망 당시 C가구에서 근무했는데 조사 당시 부도로 폐업되어 있었다. C가구는 근로자 40명이 일반 목재가구를 제조하였는데, 정○○은 도장 부서에서 근무하였다. C가구에 대한 1999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정○○가 취급한 혼합 유기용제의 성분은 MIBK, 톨루엔, 크실렌이었으며, 각각 0.302ppm, 0.355ppm, 0.234ppm으로 노출기준 보다 크게 낮았다.

### 3 의학적 소견

정○○의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나, 선행사인은 장유착으로 인한 고액성 장폐색증 및 장괴사이었다. 다발성 장기부전의 원인으로는 장폐색과 장괴사로 인한 패혈증으로 생각된다. 유기용제로 인한 혈액질환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지만, 혈액검사에

서 백혈병 등 유기용제와 관련된 혈액 질환의 소견은 찾을 수 없었다. 정○○가 최초 입원 당시 간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는데, 이는 음주로 인한 간장질환이거나 패혈증으로 인한 간기능 저하로 판단되었다.

#### 4 결 론

정○○는 25년 간 도장 부서에서 유기용제를 취급하였지만, 유기용제가 장유착이나 장폐색의 원인은 될 수 없고, 다발성 장기부전이라는 진단 자체가 불명확하고 임상검사 결과에서도 유기용제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○○의 사망은 업무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.